

방수현 “안세영, 협회 지원으로 지금까지 온 것”

# 누리꾼들 “본질 흐려”

2024 파리올림픽

방, 안세영 발언에 입장 밝혀  
누리꾼들, 배드민턴협회 비판  
옹호... “차라리 침묵하기를”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이후 파장이 커진 가운데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방수현 MBC 해설위원이 안세영 발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방 해설위원은 7일 YTN의 라디오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인터뷰를 통해 안세영의 ‘자심 발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방 해설위원은 안세영의 부상과 관련해 “아시아게임이 2022년에 열렸어야 하는데 (한 해 미뤄져서) 지난해 열렸는데 그때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선수로서는 1년도 안 남은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본인의 부상에 대해 ‘협회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대표팀에서 그랬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큰 대회를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올림픽이라는 무대 아니면 그 외에 랭킹 포인트를 따야 하기 때문에 부상은 다 가지고 간다. 나도 허리 요추 분리증 등의 문제가 있어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경기에 나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그걸 만회하면서 시합에 나가곤 한다”고도 했다. 진행자가 안세영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방 해설위원은 “금메달리스트로서 인터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힘들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힘들고 불만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나”라며 “이렇게 금메달을 땀을 흘려서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거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또 훈련 파트너를 해준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협회도 사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면 개선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협회가 선수들에게 좋게 해 준 부분도 있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할 때 (감사 인사) 해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나온 금메달에 대해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 위원은 “배드민턴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며 “저는 안 선수가 어려서부터 협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금 이 상황에서 협회에 아쉬워서 본인이 은퇴는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겠다고 공식적인 데서,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기쁜 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실

망스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안세영이 올림픽 경기 끝난 이후 협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g000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안세영이) 저렇게 안 터트리면 (협회가) 개선을 안해주는게 문제다. 방수현 말대로 상황정리된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면 컷등으로도 안듣는다. 안세영이 조용히 아무말도 안하고 버티다가 얘기했을까? 수시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도 안고쳐지니까 저렇게 터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0000 누리꾼은 “안세영 선수는 관중 선수들 마냥 예능에 나오는 선수가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다. 방수현씨 말대로 협회가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 아닌가. 문제있는 협회를 이런 선수가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말 한마디 하기위해 죽기살기로 금메달 딴 어린 후배 얘기부터 들어줬을 좋았을텐데, 선배들이 모른 척 외면한 부조리를 알고 싶었던 것” “잘못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세영 선수도 이렇게라도 밝힌 거다” “선배라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른이고, 선배다. 방수현 발언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차라리 침묵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 해설위원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땀다. 안세영의 이번 금메달은 방 해설위원 이후 28년 만이다. /뉴시스



박태준이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 아제르바이잔 가심 마고메도프와의 경기에서 상대 부상으로 기권승하며 금메달을 확정짓 뒤 기뻐하고 있다.

## 박태준, 올림픽 男 58kg급 ‘금빛 받차기’

16년만에 남자 태권도 금메달... 도쿄올림픽서 노골드 그쳤던 한국 태권도 체면 살려

박태준(20·경희대)이 한국 남자 태권도에 16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올림픽 겨루기 세계랭킹 5위 박태준은 7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에서 세계 26위 가심 마고메도프(아제르바이잔)에 기권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준이 라운드 점수 2-0(9-0 13-1)으로 앞선 2라운드 종료 1분여 전 경기 도중 왼쪽 다리를 다친 마고메도프가 다시 한 번 쓰러졌다. 마고메도프가 더 이상 경기가 힘들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박태준과 포옹을 나눴고, 그 대로 박태준의 승리가 결정됐다. 16강전에서 세계 29위 요한드리 그라나도(베네수엘라)를, 8강전에서 세계 11위 시리앙 라베(프랑스)를 꺾은 박태준은 준결승에서 세계 1위이자 2021년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튀니지)를 2-

0(6-2 13-6)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젠두비라는 큰 산을 넘은 박태준은 여세를 몰아 결승에서 ‘금빛 받차기’를 선보였다. 박태준의 금메달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쳤던 한국 태권도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다. 당시 한국은 은 1개, 동 2개를 땀다. 남자부도 범위를 좁히면 2008년 베이징 대회 남자 68kg급 손태진, 남자 80kg 초과급 차동민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이다.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 남자 58kg급에서 땀낸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박태준의 이 체급 결승 진출은 2012년 런던 대회 이대훈(은퇴)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이대훈은 당시 결승에서 패배해 은메달에 만족했다. 이대훈의 은메달이 박태준 이전에 한국 남자 태권도가 이 체급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이외에 남자 58kg급에

서 땀 메달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의 김태훈, 2020 도쿄 대회의 장준이 땀낸 동메달이 전부였다. 박태준은 올해 2월 최종 선발전에서 자신보다 세계랭킹이 3위로 높은 장준을 꺾고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는데 성공했다. 최종 선발전 이전까지 장준에게 6전 전패를 당했던 박태준의 승리를 접치는 이가 많지 않았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두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장준을 꺾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자신감을 키운 박태준은 첫 올림픽에서 최정상을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올림픽에 나선 한국 선수 4명 중 가장 먼저 결전에 나선 박태준이 역사적인 금메달을 일구면서 한국 태권도 대표팀은 ‘멀티 골드’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뉴시스

Amitie

A  
M  
I  
T  
I  
E

Amitie

Trio

2024. 8. 9(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 전석 3만원

예약 | L&B 예약 "Amitie" 검색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 063. 223. 5323

## 김예지의 코끼리 인형, ‘올림픽 핫 액세서리’ 되다

외신 “역대 가장 멋진 아이템”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 김예지(임실군청)의 코끼리 인형이 이번 대회 팬들 마음을 사로잡은 액세서리로 선정됐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8일(한국시각)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이목을 끈 선수들의 액세서리 9개 중 마지막으로 김예지의 코끼리 인형을 조명했다. 매체는 “한국의 명사수 김예지는 딸의 코끼리 인형을 허리춤에 매고 은메달을 땀다. 이는 역대 가장 멋진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누리꾼들은 시크한 분위기와 대비되는 귀여운 코끼리 인형이 김예지의 반전 매력을 더해 준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딸의 것으로 알려진 코끼리 인형은 사실 대표팀 코치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김예지는 “코끼리 인형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 딸이 준 것이 아니라 코치가 화약을 땀이라고 선물한 것”이라며 “귀여워서 오해를 불러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의 코끼리 인형이 이번 대회 팬들 마음을 사로잡은 액세서리로 선정됐다. 사진은 심민(왼쪽) 임실군수가 7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김예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일으킨 것 같다”며 웃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김예지를 ‘한국 슈퍼스타이자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보도한 적 있다. 실제로 김예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첫 올림픽 무대에 참가했던 김예지는 지난날 28일 공기권총 10m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땀다.

지난 7일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김예지는 “파리에 있을 때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니 메달을 땀구나 실감이 나는 것 같다.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사격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매력적인 종목이다.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뉴시스

## 2024 하계 일본 도쿄농대 하키팀, 김제서 전지훈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 하계 일본도쿄농업대학교 하키팀 전지훈련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김제시 하키팀전용구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4 하계 일본도쿄농업대학교 하키팀 전지훈련에는 총 5개팀이 참가했으며 선수들은 내리치는 햇볕에도 불구하고 하키팀을 누비며 뜨거운 열정과

함성으로 하키팀을 가득 채웠다. 또한 현란한 기술과 함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10일간 하키팀 선수들 및 관계자들의 김제 방문을 통해 음식업, 숙박업 등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하키 명문 고장 김제에서 이번 전지훈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전지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의 하키팀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기를 바란다”며 “시도 하키팀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 하키팀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진행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